

음식료/담배 | 증립(유지)

이슈: 올해 원유가격 리터당 922 원으로 전년대비 18 원 하락

낙농진흥회에서 올해 원유가격을 전년대비 18 원 하락한 리터당 922 원으로 결정했다. 원유 공급과잉 및 우유 소비부진을 감안한 결과이며, 2013 년 원유가 물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가격이 하락했다. 원유가 하락으로 유업체,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며, 원유의 원가비중이 높은 유업체들의 수혜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 현재 탈지분유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이슈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

올해 원유가격 922 원으로 결정

- 낙농진흥회에서 올해 원유가격을 전년대비 18 원 하락한 리터당 922 원으로 결정
- 통계청에서 발표한 15 년 우유 생산비는 14 년보다 33 원 감소한 리터당 763 원,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+ 0.7%
- 생산비 감소액 33 원중 지난해 원유가격 동결로 인한 인상 유보액(15 원)을 뺀 나머지 금액(18 원)을 인하
- 2013 년 8 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원유가격이 834 원에서 940 원으로 상승했으며,
- 원유 공급과잉으로 2014, 2015 년은 원유가격 동결. 원유가 물가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원유가격 하락
- 최근 원유수급 불균형, 우유 소비부진 등을 감안한 결과이며, 원유가격 물가연동제는 현행대로 유지

유업체,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 점진적 완화 기대

- 유제품/빙과류 원가 중 원유가 50~80%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업체,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 점차 완화 전망
- 다만 시유, 발효유, 가공유, 빙과류 등 제품별로 원가비중이 다르며, 일반적으로 유제품의 원가비중이 높으므로 유업체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슈
- 매일유업, 남양유업 등의 시유 판매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시유부문 적자 축소 기대(원가율 80% 이상)
- 빙과업체는 탈지분유 함량이 높은 제품(투게더 등)의 원가부담 완화 기대

원유 공급과잉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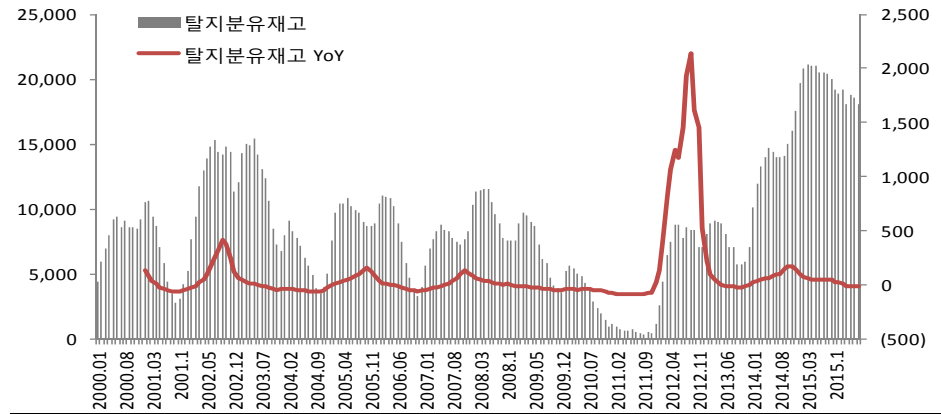
- 원유가격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젖소 사육두수 증가가 공급과잉의 원인이며, 생산된 원유는 유업체에서 대부분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유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
- 2016.4 월 기준 탈지분유 재고는 18,030 톤으로 2015.3 월 21,150 톤에 비해 약 14.2% 감소했지만 평소 적정 재고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수준
-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농진흥회 차원에서 젖소 도축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점차 원유 공급과잉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보유중인 탈지분유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김승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4 단계(6 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탈지분유 재고 및 YoY 추이

(단위 : 톤 %)



자료 : 낙농진흥회

주 : YoY 는 우축